

## 철지난 가을바다 (9/17/2012)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만남과 이별에는 항상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자욱이 남는다. 작열하던 태양의 여름바다는 이름 모를 피서객들과 함께 떠나가고 몇마리의 물새와 파도만이 빈 백사장에 남겨진다. 비라도 내리는 <가을 바다>는 그렇게 말없이 혼자서 운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대로, 그리우면 그리운대로 가슴에 묻어둔 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어찌할꺼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내려도 닦을 수 없으니 어찌할꺼나... 소리내어 울부짖어도 꺼억 꺼억 빈 울음만 나니 어찌 할꺼나... 아들이, 아들이, 아무리 목놓아 불러도 빈 하늘만 허공에 걸려있으니 이를 어찌 할꺼나...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곁에는 주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얼마전 일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60 대 전후의 아들 둘을 모두 잃어버린 어머니 한분이 계신다. 내 어머니와 연세도 비슷하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며, 수줍음도 많으시고, 항상 친구 어머니처럼 인자하시던 분이다. 그분이 아파하는 동안, 나는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해드릴 것이 없어서 수요일예배 때 그 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를 색소폰으로 불러드렸다. 물론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며, 그분은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인간사가 항상 그러하다. 떠나는 자는 이유가 무엇이든 떠나면 그만이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든, 더 잘 살기 위해서든, 목숨이 다해서든, 삶이 지겨워서든, 무슨 이유에서라도 떠나갈 사람은 떠난다. 항상 남겨진 사람이 문제다. 이별을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남겨진채, 가슴앓이를 하고 그리워하고 못잊어한다. 눈물도 남겨진 자의 몫이고, 상처도 남겨진 자의 몫이다. 상처에 딱지가 앉으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나는 그날 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철지난 가을바다>를 보았다.

나는 바다를 무척 그리워한다. 꿈속에서도 바다를 본다. 내가 죽은 후의 망막에는 아마도 고향바다가 잔상으로 새겨져 있을 것이다.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의 바다를 모두 좋아한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잠만 나면 바다로 간다. 그렇다고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바다 냄새만으로도 좋다.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좋다. 백사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좋다.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다. 바다의 파도 소리만으로도 좋다. 반면에 아내는 산을 더 좋아한다. 바다는 아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바람이 더세고, 모래가 날리고, 자외선이 강렬하고, 햇빛이 눈부시고, 파도가 무섭고, 옷을 갈아입기가 번거롭고, 바르고 씻고 화장하는 것을 귀찮해한다. 하지만 남자가 바다를 좋아하니 기꺼이 따라나선다. 이번 여름에도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예배를 보고 바다를 가는 것으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교회 사역이 7,8월에 대거 몰려있는 것이다. 비밀이 누설되었나. 아무튼 일곱번 계획에 세번밖에 바다를 가지 못해 여간 아쉬운게 아니다. 철지난 바닷가라도 다녀와야겠다.

나는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시절을 광안리라는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바다를 눈에 넣고 살았다. 여름이 되면 서울이며 객지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이 혁명군들 처럼 부산의 해수욕장들을 일괄 점령한다. 나의 청소년 시절, 부산 촌놈들은 세련된(?) 외지인들을 피해 동해남부선 완행열차를 타고 한적한 바닷가로 가서 텐트를 치고 놀다오곤 했다. 대학시절에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부산 부모님 집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 학기말 시험을 마치자마자 그날로 즉시 혼자 배낭을 꾸려메고 한달 동안 전국 바다와 산을 돌아다녔다. 대학교 일학년때는 같은 과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러명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내 취향과는 별로 맞지 않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은 혼자나 둘이서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웃끼리 가는 가족여행도 세가족이 넘으면 여행의 재미가 반감된다. 혼자 여행을 다니면 여러명이 갈 때보다 여러 계층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나는 혼자니까 상대방도 경계심을 풀고 더 쉽게 친해진다. 혼자 여행다니는 싱글들도 의외로 많다. 그리고 만나고 헤어짐에 경계가 없다. 며칠을 함께 지내다가도 각자의 여행 일정에 따라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므로 이별이 자연스럽다. 그렇다고 다시 만나자는 것도 남세스럽다. 사진을 핑계삼아 그 짓도 몇번 해 보았지만 여행지와 현주소는 엄연히 다르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아야 한다는걸 배운다. 여행은 서로가 떠나는 자들일뿐, 남겨진 자는 없다.

하지만 <철지난 바닷가>는 남겨진 자다. 그렇다고 남겨진 <가을 바다>는 고독하고 외로운가. 혼자 남겨졌다고 외롭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의 눈이 그 가을바다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투영되어 내 마음에 색인되는가에 따라 다르다. 바다는 변함이 없다. 봄바다는 봄바다이고 겨울바다는 겨울바다일 뿐이다. <겨울바다>를 혼자서 바라보면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장엄하고 큰 울림이 느껴진다. 아무리 바람이 더세고 살을 에이는 추위라 할지라도 겨울바다가 가엾게 여겨지지 않는다. 유독 <가을바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떠나간 자의 그리움 때문이다. 그리움은 지우려할수록 더욱더 그리워진다. 잊으려 할수록 기억세포에 깊이 파고들어 문신처럼 남는다. 그래, 상처자욱을 안고 살자. 저 파도처럼 저 물새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살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힘내세요.